

1. 1.21 사태가 서울에 미치는 공간적인 영향

* 강사의 경험담 소개

→ 1복궁: 서울의 정치 권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

① 서울의 1968 ‘1.21’

몇 겹의 감시망이 둘러쳐진 그곳은 ‘서울 속의 군사분계선’이다. 그 유산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지금도 북악 팔각정에서는 도심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다.

⇒ 정치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

② 1라자호텔이 북향하고 선 까닭, 반포대교가 잠수교와 이중교를 이룬 까닭은 북악과 인왕이 군사적 특수지대로 된 것과 같다.

⇒ 1공의 국시는 서울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 , 심지어 창고의 크기나 여닫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박정희식 개발주의

박정희는 군사적 성장주의에 입각한 파괴적 개발을 최상의 개발로 여겼던 인물

예) 그린벨트의 설정 역시 전문가들에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린벨트의 무조건 해제와 난개발이라는 문제를 낳게 된 것

⇒ 1정희식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냄

청계 고가도로

전국적으로 박정희식 개발에서 경부고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상징이라면, 서울에서는 청계 고가도로가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 김현옥 시장

- 박정희 수족이 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밀어붙인 사람

- 1960 -1970 !까지 서울시 시장으로 재직

- ‘서울 재건 작업’을 박정희식으로 추진한 끝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꼴을 만든 사람이다.

→ ‘정적인 평가로 서울을 평면의 도시에서 수직 도시로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시민아파트 설립 문제

* , 주거 문제

→ 1금의 세운상가 위치는 전쟁 후 많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살면서 대규모 사창가

를 형성했던 곳이다. 2. 1만여 채 밀어내고 주상복합 건물인 세운상가를 건설함으로써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빈민을 중심에 놓고 만든 것이 시민 아파트가 2 4 , 서울 근교의 산마다 시민아파트가 들어섰다고 보면 된다.

→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수를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실 공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불도저 김현옥의 몰락 → 1우아파트 붕괴 사고

⇒ 박정희식의 이러한 난개발은 서울의 역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 아래, 정치적인 힘에 의해 강제적,

2. 박정희 사후에도 계속되는 파괴적 개발

(1) < >

박정희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강의 격리 작업은 전두환에 의해 완성

→ 1은 완벽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단되고,

이런 박정희의 시대착오적 개발 방식은 한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천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 1강의 생태적 재생은 박정희 이래의 파괴적 개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생태적 개발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3. 도심 생태계의 회복

(1) 1울의 남북 녹지축 회복

⇒ 1 자체로 반역사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이자 새로운 생태 문화를 세우기 위한 과제

* 율곡로의 서부 복개가 갖는 의의

⇒ 1제에 의해 파괴된 역사의 복원과 생태적 복원으로 볼 수 있다.

* 생태계 회복의 과정

일제에 의해 잘려진 종묘와 창경궁을 하나로 연결

⇒ 1운상가의 재개발은 이 녹지() 1 남산으로 연결

⇒ 1렇게 이어진 녹지축은 남산을 넘어 용산 미군기지에 이르게 하여 거대한 자연의 숲으로 조성

⇒ 1촌동 아파트 재개발 때, 이 자연의 숲이 다시 한강으로 연결

▶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되살릴 수 있을 것

4. 파괴적 개발의 반시민적인 성격

(1) 세종로 일대의 모습

⇒ 박정희 시대에 이 거리는 구충독부 청사의 좌우에 정부종합청사와 미 대사관이 위치했다.

* 구충독부 청사

-

- 김영삼 정부 때 대책 없이 철거

⇒ 1재자의 지배와 감시의 거리라는 세종로의 기본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

*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모든 길목에서 우리는 무수한 감시의 눈길과 마주치게 된다. , , 우리

가 진정으로 시민 주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5. !

세종로는 ‘한국의 상징 거리’가 될 만하다. 제작년부터 일년에 한번씩 ‘지구의 날’ 행사 때잠깐이나마 세종로가 시민에게 개방된다.

세종로 북판에 서서 인왕과 백악은 둘러보면 길가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끼게 된다. 경복궁 뒤로 보이는 청와대가 얼마나 웅물스러운가를 정말 절감하게 된다. . 청와대는 시청 자리로 옮기고 시청 앞은 보행자 광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종로는 경복궁 복원 사업을 계기로 문화와 시민의 거리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미 대사관과 문광부와 한국통신 터를 합쳐서 이곳에 국립미술관을 들여야 한다. 한국일보 사옥 맞은 편의 미 대사관 직원 숙소와 그 옆의 기무사는 생태역사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